

지혜로운 삶

#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완성된다

## 이기신 하나님의 분신과 변신 능력을 모르면 보광 작전 이해할 수 없어

영육일체설을 논하는 곳은 이 지구 땅 위에 이 승리제단밖에 없다(2001년 3월 1일 이긴자 설교 말씀에서 인용). 영육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서 “영=피=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마음이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주인이 되는 마음을 구체적인 술어로 표현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방의 영이 되는 마귀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영육일체제에 의한 죽음만이 있었지 영육일체제에 의한 영생은 없었던 것이다. 아담과 해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분 하나님이 되는 아담과 해와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남자와 여자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나머지 한 분 하나님이 지켜 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과정을 지켜본 태초의 하나님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시다가 조희성님의 몸을 입고 이 세

상에 태어나신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조차 인간 마음의 주인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사로잡은 마귀 영이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람 속에 피가 섞여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현상을 알았기에 “핏속에 죄가 있다”라고 영모님의 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1931년 음력 6월 28일에 김포 감점리(坎井里)에서 조희성님이 탄생하셨다. 인간 조희성 속에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마귀가 되는 과수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다른 존재가 되는 태초 하나님이 양심과 생명으로 있게 되었다. 예컨대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가운데 산소 원자가 최도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이 된 원인이, 산소 속에 생명력의 인자가 들어 있기에 그 생명력의 인자(하나님의 신)를 가두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산소 원자의 결합질(산화 물질=생명을 썩히는 마귀 영)로 에워싸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원리에 따라 태초의 하나님이 6천 년 만에 인간 조희성님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태

어나자마자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과수 마귀도 산소의 결합질에 산화물질이 형성되듯이 조희성님의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긴자 설교 말씀에 조희성이 마귀 중의 과수 마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때려잡아 소변으로 피를 3년간 쏠게 만들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새로 만드셨다고 했다.

1980년 10월 15일은 조희성님 속에 태초의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긴 승리하신 날이다. 이 승리의 날 이후부터는 태초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었기에 ‘조희성’이라는 성(姓)과 이름도 불경에 예언된 생미륵불로 오시는 조(曹)씨 성을 갖출 자격이 되었고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가 빛나는 새벽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004년 6월 19일에 구세주 조희성님이 보광하셨다고 해서 인간 조희성의 몸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고 인간 조희성님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나와 역사한다고 괴이한 영육분리설로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태선 기자



수니의 요가교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백 살 먹어도 자신을 어린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한가히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고로 병에 걸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인 고로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입안에 서부터 뱃속까지 생수가 연결된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영인고로 항상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 사랑을 만나도 기쁘고 저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이런 일을 당해도 기쁘고, 저런 일을 당해도 즐겁다. 그러고도 소망이 큰 자,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이 된다는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몸과 마음을 활짝 펴라!!!  
웃어라 하 하 하!!!

효능: 좌우 몸통 비틀기, 상하좌우 팔

다리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전신 운동 효과, 옆구리 근살 제거, 하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균형감각과 평형감각을 키워주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의: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수련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팔다리 배합 운동을 적절하게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한다.

동작①: 양 다리를 어깨 두 배 넓이로 서서 양팔은 왼쪽 45도 위로 들어 올린다.

동작②: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접어 왼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양팔은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뿌려준다. 좌우 교대, 10회 반복.

동작③: 서서 왼 다리를 뒤로 보내 발끝을 바닥에 대고 양손은 높게 들어 올린다.

동작④: 호흡을 내쉬면서 왼 다리를 앞으로 보내 90도로 접으면서 양팔은 아래로 내린다. 좌우 교대, 10회 반복.\*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13회

# 먼저 들어온 자는 망하고 중간에 들어온 자는 살고 마지막에 들어온 자는 죽으리라

## 未運論말운론

聖壽何短可憐人生 성수하단 가련인생  
末世聖君湧天杵 말세성군용천박  
獸衆出入變心化 수중출입변심화  
獄苦不忍逆天時 옥고불인역천시  
善生惡死 審判日 신생악사판일  
死中求生有福子 사중구생유복자  
是亦何運 시역하운  
林將軍出運也 임장군출운야  
天定此運亦悲運 천정차운역비운  
十二神人各率神兵 십이신인 각솔신병  
當數一先定 당수일이선정  
此數一四四之全田之數  
차수일사사지전전지수

성인의 목숨이 어찌 이리도 짧은가? 가련한 인생 어이할꼬? 말세성인은 하늘을 닮은 박(박=목인)이나, 짐승 같은 인간들의 마음속을 드나들며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분이 액운을 당하여 옥고를 치르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하늘이 정해둔 천시(天時)를 거스르게 된다. 선한 자만 살고 악한 자는 죽는 심판의 날이 닥칠 때도 죽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이가 있으니 역시 무슨 운인가?

동방의 청림도사가 출현하는 운인데 하늘이 정한 운이지만 역시 슬픈 운이나, 하나님을 모신 두 신인이 먼저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정도령(6도72궁)과 두 번째 정도령(여인 한 분)이 그 두 분이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정도령(6도81궁)이 완성의 정도령(마귀를 이긴자 완성의 삼위일체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나라.

新天新地別天地 신천신지별천지  
先擇之人不受皆福 선택지인불수개복  
中擇之人受福之人 중택지인수복지인

後入之人不福亡 후입지인불복망  
用中生涯泡琴聲 용중생애포금성  
淸歌一曲灑精神 청가일곡쇄정신  
勿思十處十勝地 물사십처십승지  
獨利在弓弓間 독리재궁궁간  
此運西之心 차운서지심  
申西兵四起 신유병사기  
戌亥人多死 술해인다사  
寅卯事可知 인묘사가지  
辰巳聖人出 진사성인출  
午未樂堂堂 오미낙당당

새 하늘 새 땅은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別天地)이나, 도를 닦으러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며(先入者亡선입자망) 중간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복을 받으며(中入者生중입자생) 마지막에 들어온 자는 복을 받지 못하니 죽으리라(未入者死말입자사).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거문고 타는 소리와 청아한 노래 소리에 찻는 듯 정신이 더욱 쾌락해지느니라. 십승의 삶이 이러하니 지리상의 십승지를 생각하지 마라. 오직 궁궁지간인 하늘나라 백심승에 목숨을 보전하는 이로움이 있느니라.

신유(申酉)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술해(戌亥)에 사람이 많이 죽으리라.(술해에는 상강, 임동이 들어있고 서리와 눈이 내리고 속살지기가 들어온다. 영적인 말이다. 개, 돼지 같은 인간은 다 죽으리라?). 인묘(寅卯)가 되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리라. 진사(辰巳)에 성인(6도 81궁 정도령)이 출현하고 오미(午未)에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小頭無足飛火落地 소두무족비화락지

隱居密室依天兵 은거밀실의천병  
欣天勢魔 自躄 혼천세마 자주적  
欲死欲走永無得 욕사욕주영무득  
不知三聖無福數 부지삼성무복단  
此運西之心 차운서지심  
彼賊之勢 哀憐然 피적지세 애쳐연  
山岩隱之身掩 산암은지신엄  
衆日光眼不閉目 중일광안부폐목  
四九之運百祖一孫 사구지운백조일손

소두무족은 불 화(火=뱀=마귀)를 의미한다.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땅에 떨어질 때면 밀실에 은거하여 천병에 의지하니 하늘을 흐드는 마귀의 권세가 주저주저하리라. 죽어라 달아나도 피난처를 얻을 수 없으니 마귀를 이긴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복 없음을 한탄하리라.

이 운은 추풍낙엽과 같이 엄정하고 무서워 저들 도적(구세주하나님을 몰라보고 서학을 떠받드는 자들)들의 기세가 여지없이 꺾이게 되니 그 신세가 참으로 애처롭구나. 산과 바위틈에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무리들은 밝고 밝은 대명천지에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눈을 크게 뜨게 되리라. 금운이 들어오면 백조일손의 운을 맞게 되리라.

龍蛇發動雙年間 용사발동쌍년간

無罪之定三數不忍出獄 무죄지정삼수불인출옥  
悲運一四數 비운일사수  
不足之投火滅之 부족지투화멸지  
後生之集合舍之運 후생지집합합지운  
滿數之飲鄭氏黎民 만수자음정씨려민  
多小不計受福之世 다소불계수복지세  
一六好世壬三之運 일육호세 임삼자운  
或悲或喜 후비후희

진년, 사년의 2년간 하늘의 역사가 일어 나리라. 정도령이 죄가 없지만 하늘이 정한 3수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비운이 닥치게 되며 144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류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전멸하게 된다. 후생들이 모여 합쳐서 하나가 되면 부족한 수(數) 즉 144수를 다 채워 생명수(감로해인)를 마시게 되어 정도령을 따르는 하늘 백성들이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복을 받는 세상이 되리라. 그 세상은 생명수를 마시는 좋은 세상이 된다. 가다리던 임삼(壬三=壬寅)의 운은 불원간 오리나 한편으론 슬프고 다른 한편으론 기쁠 것이니 생사가 갈라지리라.\*

박명희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 생명샘

###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태원참사 사망자의 회생을 애도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쫓겨난 청춘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미연에 발생을 막지 못했는지, 재발방지대책은 있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6명의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볼 때에 맨처음 떠오른 것은 헬로윈 축제가 영적으로 좋은 일인지 하는 측면이다. 귀신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헬로윈 문화는 - 필자는 헬로윈문화에 대해서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생명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는 종교인의 관점에서 말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랄 뿐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또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승리

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자마귀에게 점령되기 쉽다. 명절날 죽은 자를 추모하지 말라는 것 또한 승리제단의 교리이다. 이러한 교리가 야박하고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대개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편승하는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이 구세주의 가르침이다. 죽은 자를 추모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자마귀를 불러들여게 되어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죽음병에 걸려 오랜 세월 투병의 고통을 겪은 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세인(世人)들은 말로만 생명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 세상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망의 신(마귀)과 생명의 신(하나님)의 전쟁터이다. 마귀는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갖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병을 주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 최후 승리는 궁궁(弓弓)에 있다는 격암유록대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때에 가까워질수록 마귀들이 일으키는 죽음의 잔치는 성대해질지 모른다. 우리 모두 깨어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